



2026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포스터(부분). 서귀포예술의전당 제공

202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우승자 서귀포 찾는다

서귀포에당 1·2위 초청 공연

2022년부터 국제 콩쿠르 수상자 초청 공연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이번엔 '2026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를 기획했다.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첼리스트들의 빼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는 주요 부문을 연도별로 순환 개최한다. 올해는 첼로 부문 경연이 진행됐고 서귀포에서 바로 그 수상자들을 만날 수 있다. 주인공은 첼로 부문 1위 에토레 파가노와 2위 김태연이다.

이탈리아 로마 태생의 에토레 파가노의 첼로는 "깊고 어두운 저음과 인간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풍부한 중음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김태연은 20세의 신예로 "화려한 테크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연주자"라는 평이 따른다.

이날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김태연은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가장조',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피가로'를 선곡했다. 뒤이어 에토레 파가노가 무대에 올라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마르티누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한다. 피아노는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맡아 두 첼리스트와 섬세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빛낸다.

유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예매 개시는 이달 20일 오전 10시 서귀포 E티켓.

전선희기자

주말, 여기 81주년 광복절에 만나는 공연

금빛 선율과 노래로 광복 의미 새긴다

제주국제관악제 마지막 날 해변공연장서 경축 음악회 도심 관악 퍼레이드도 진행

서귀포시 금토금토 새연쇼 특별 공연 이어 3분 불꽃쇼

8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 제주 곳곳에서 이날을 기억하는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금빛 선율로, 노래로 광복절의 의미를 새기는 공연도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이하 관악제) 광복절 경축 음악회는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광복절이 있는 기간에 치러지는 여름 대표 음악 축제인 만큼 매년 퍼레이드와 경축 음악회를 열어 그때 그날의 기쁨을 음악으로 전해 왔다.

올해도 9일간의 여름 시즌을 마무리하며 경축 음악회를 선보인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6시 문예회관 광장 식전 공연에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는 해변공연장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해변공연장에서는 오후 7시20분부터 운영하는 마중물 콘서트가 끝나면 오후 8시에 경축 음악회의 막이 오른다.

제주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퍼레이드에는 전날 저녁 해변공연장 마칭 페스티벌을 꾸민 팀들도 참여한다.



지난해 여름 시즌에 열린 제주국제관악제 경축 음악회.

관악제 조직위 제공

캐나다 더업티미스트어머나, 독일 제8 후사렌 부케 트럼펫코어, 한국 아인스바움, 태국 수라삭몬트리브라 스탠드, 미8군 군악대가 그들이다. 20년 전인 2006년 관악제 기간에 개최했던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 제주대회'의 화려함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경축 음악회는 제주 민요로 시작해 광복의 뜻을 품은 노래로 막을 내린다. 우나이 우레초가 지휘하는 관악제 연합관악단이 연주를 맡아 지난봄 탄생한 2026 제주국제관악제 곡공쿠르 1위 곡인 김신의 '환상서곡 제주', 안복자 명창의 '서우젓소리'와 '오돌또기', '마스터의 꿈 III' (트럼펫 협연 엔스 린더만), '두 대의 유포니움을 위한 브릴란테' (협연 아담 프레이·공홍량),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서귀포합창단과 함께 빛어낼

'아! 대한민국'을 들려준다. 비 날씨가 야외 행사가 어려울 경우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시간에 경축 음악회를 갖는다.

서귀포시에서는 '금토금토 새연쇼'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15일 오후 7시부터 서귀포항 새연교 입구에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눈다.

출연진은 제주의 '꼬마 바이올리니스트'가 모인 '제꼬바', 따뜻한 감성의 어쿠스틱 듀오 'NOD', 팝페라 듀오 '네리나', 특별 공연 후에는 '금토금토 새연쇼'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를 볼 수 있다. 광복절을 기념해 종전보다 시간을 늘려 3분간 불꽃쇼를 연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장에선 페이스페인팅, 태극기 스티커 타투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미니 태극기도 배부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낭만의 풍경 이면... 올빼미와 감귤

현승의 개인전 새탕라움 '올모스트 파라다이스 II'

현혜정 개인전 돌담갤러리 '또 다른 세상-언더 더 씨'



현승의 '코코넛이 있는 풍경'.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제공

제주시 도심 전시장에 두 작가의 작품이 각각 펼쳐지고 있다. 현승의 개인전과 현혜정 개인전이다.

제 20회 금호영아티스트(2022년) 선정 경력의 현승의 작품은 6년 만에 고향 제주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새탕라움에서 펼쳐지는 '올모스트 파라다이스 II'전이다.

이 전시는 2025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올모스트 파라다이스'의 연장선. 당시 주목받았던 대표작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익숙한 제주 풍경이 보이는 가로 659.5cm의 대형 작업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려'를 비롯해 '코코넛이 있는 풍경' '사랑의 이름으로' 등 4점이 나왔다.

현 작가의 작업은 이 땅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논리와 그것이 표방하는 낭만·행복·발전의 서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관광의 섬 제주에서 이상화된 풍경 이면에 숨은 사회적 맥락을 포착해 왔다. 전시장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현혜정 작가는 육지의 올빼미가 바다속에 사는 상상력을 화면 위에 풀어냈다. 이달 11~23일 돌담갤러리에서 이어지는 10번째 개인전 '또 다른 세상-언더 더 씨(Under the Sea)'다.

작가는 바다라는 낯선 공간에 놓인 올빼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린 30여 점을 보여준다. 올빼미와 함께 불려낸 소재는 제주 감귤. 올빼미 머리 위에 산호꽃으로 태어난 감귤은 해조류 등 바다의 여러 생명들과 어우러진다. 이를 두고 작가는 "버려지고 잊힌 존재들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전시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음악영재들의 축제 인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음악 전공 청소년 중 14명을 선발해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 음악영재 마스터클래스' 결실을 선보이는 무대. 전문 교수진과 함께 전공별 1대 1 전문 교육으로 연주 역량을 높여 왔다. 15일 오후 3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

▷중앙도서관 '제주를 콦다-트 명사이로'=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제주의 나무와 꽃자왈, 유배 문화, 무속 신앙과 신화, 음식 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과 탐방을 진행하고 티볼렌딩과 향토음식 체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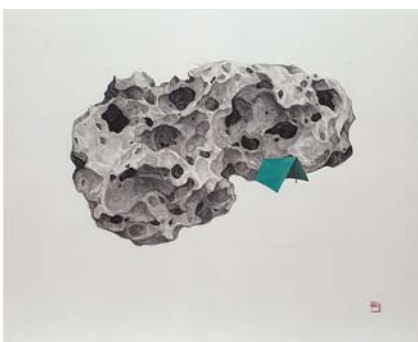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짜였다. 운영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성인 20명 모집.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참고.

▷소암기념관 하반기 서예교실= 서예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소암기념관의 장수 프로그램. 하반기 서예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한글반과 한문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가족 간 건강한 취미 활동 장려를 위해 가족 단위 신청자를 정원의 30%에서 우선 뽑는다. 수강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최종 수강생은 이달 26일 공개 추첨으로 선발한다. 소암기념관 누리집 참고.

제주 자연 안에서 깊어진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 최은영 제주갤러리 개인전

"나는 무엇을 하다 죽을까." 성인이 된 후 지인의 부음을 들을 때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최은영 작가가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작업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가까운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며 작가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그랬다. "나는 무엇을 하다 죽을까." 2026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그런 제목을



최은영의 '긴 산행'.

제주갤러리 제공

달고 제주의 자연 안에서 깊어진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담아냈다.

작가가 한지와 먹, 분체를 이용해 2년 만에 갖는 개인전에서 내놓은 작품은 '바람의 빛깔' (2026), '긴 산행' (2025~2026), '고

독의 모서리' (2025~2026), '족파(足波)' (2026) 등이다. 이 중에서 6개의 병풍처럼 제작한 '족파' 시리즈는 걸음의 흔적으로 삶의 시간을 드러낸다.

참여형 설치 작업인 '걸음이 멈추는 곳'도 나왔다. 서귀포에 정착한 작가가 자연의 순환에서 발견한 깨달음을 관람객과 나누려는 작업이다. 방문객들은 작품 안내문의 설명에 따라 삶에 대한 질문이나 자신만의 답을 남길 수 있다. 그 기록들도 한편에 함께 전시해 우리의 삶 또한 서로의 흔적 위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전선희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